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 2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
-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 담당

11/22(화)	11/23(수)	11/24(목)	11/25(금)	11/26(토)	11/28(월)
박성원2 재적안수집사	유창근 안수집사	소형석 안수집사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정호성2 안수집사	박윤일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88장
기도	소형석안수집사
성경봉독	사무엘하 1:1~11
찬양	날마다
설교	『다윗의 진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539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묵상 >

1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들을 머물더니 2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6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요 일	본 문	제 목
11월 25일(금)	삼하 2:1~4a	마침내 왕이 되어 돌아오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1월 24일(목)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강한 팔에 이끌리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심과 평안과 만족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세세히 응답하여 주시고, 지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새문안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를 향한 진심과 따뜻함과 사랑이 더욱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2022년 모든 교회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게 하옵소서. 속한 각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잘 통과하며, 강한 신앙의 힘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깊은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진심으로 화해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북한 동토의 땅이 복음으로 따뜻한 봄날을 경험케 하옵소서.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과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